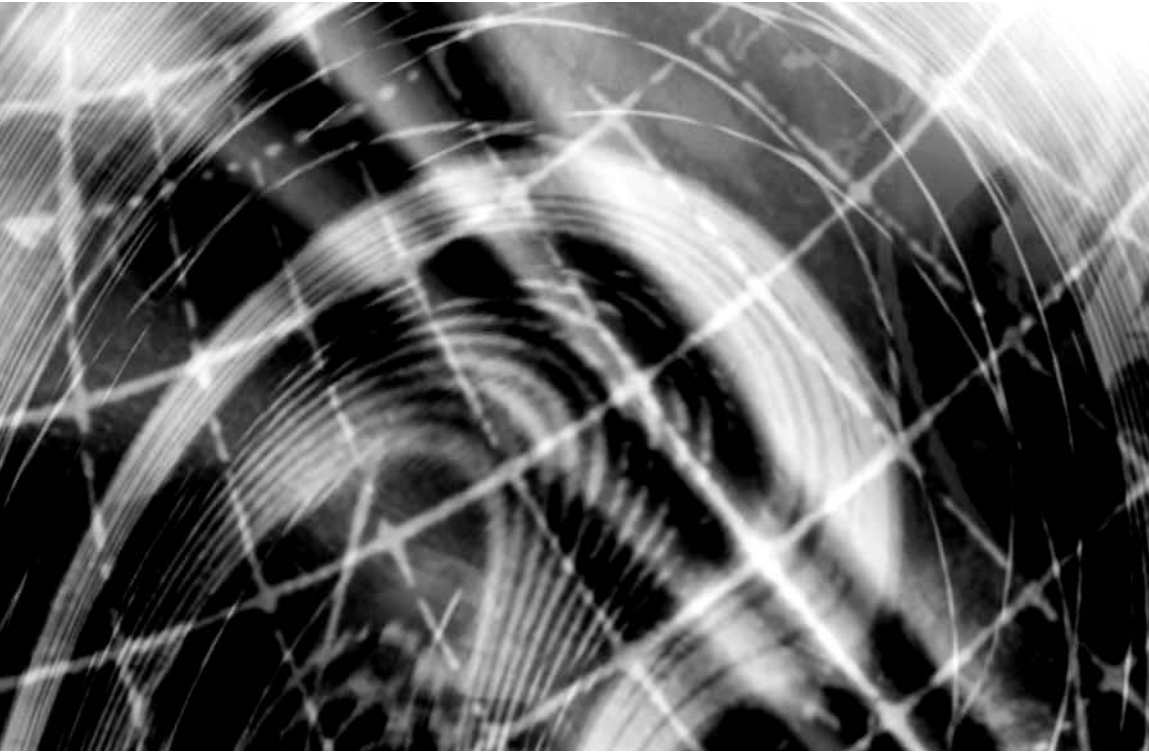


트랜서핑-가능태를 현실로

| 바딤 젤란트 | 박인수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이 글은 지난해에 나간 에너지 펜듈럼 저자와의 인터뷰 글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도 중에서 행복과 풍요의 파도를 골라 갈아타고 현실을 서핑하는 법을 제시한 바딤 젤란트와의 대화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트랜서핑 체험 워크숍이 진행되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152쪽 참조)(편집자 주).



[트랜서핑]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당신에게 나타났나요?

[트랜서핑]은 아이디어도 아니고,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트랜서핑은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신비지식의 유산입니다. 그 신비지식은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무에게서도 배우지 않았고, 어디서도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보가 스스로 내 머리 속으로 들어왔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외계인이나 유령들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내 꿈에 나타났던 삼림보호구역 감시인입니다. 그분은 고대 신비지식의 수호자 중 한 분이지요. 그 꿈 이후에 내 머리 속에 정보의 흐름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시인과의 만남은 책의 첫 부분에 묘사되어 있지요. 그 만남 이후에 나의 삶은 갑작스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별달리 특별한 재능이 없던 전직 물리학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책을 쓰기 시작했죠.

당신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 전환점은 내가 삶에서 극도로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던 때인 것 같아요. 내가 25년 전에 나의 책 “트랜서핑”을 읽었더라면, 내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바람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아마 이 책을 쓸 수 없었겠지요… 그 모든 시련 끝에 어떤 채널이 열렸고, 그 통로를 통해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평생 나는 반(反)-트랜서핑을 해왔어요. 모든 것을 트랜서핑과는 반대로 해왔다는 거죠. 영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배우지만, 바보들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바보였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실수와 남의 실수 중, 어느 것에서 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리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만 알지요. 달리 말하자면, 영리한 사람은 정보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와 달리 바보는 부딪혀 머리에 혹이 날 때마다 거기에서 실수의 핵심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진정한 지식을 얻는 것이지요. 오직 바보만이 신비지식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까?

독자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읽고 판단해보면, 독자들의 거주 지역,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은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지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부한 마음의 한계 안에서는 트랜서핑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깊은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트랜서핑은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대단히 감탄하며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의 감사편지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거부하는 사람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가능태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현실은 두 가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형태로서, 우리의 지각범위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형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은 무한한 크기의 이중거울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물질세계가 있고, 다른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이 있지요. 그 가능태 공간은 모든 가능한 사건들의 시나리오를 간직하고 있는 정보체(정보구조)입니다. 가능태들의 수는 좌표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무한합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가능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의 꿈과 투시능력, 본능적인 지식, 그리고 깨달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상념에너지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태 공간의 어떤 구역(섹터)을 물질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영혼과 이성의 합일”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신비한 힘 - 외적 의도(external intention)가 탄생합니다. 당신이 만일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면, 이 힘은 당신이 “주문하는” 것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물질로 실현시킨다는 것이지요.

이 책은 그저 또 하나의 자기개발 기법인가요?

트랜서핑은 자기개발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입니다. 성취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저 얻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세상에 대한 태도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당신이 세상과 싸우면, 세상은 당신과 싸웁니다. 당신

이 싸움을 멈추면, 세상이 다가와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당신이 그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도록 허용한다면, 외적 의도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목표를 성취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시나요? 이제 그만 원하기를 멈추세요. 당신은 어떻게든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저 당신이 원래 자기소유인 것을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가지세요. 내가 그걸 가지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젭니까? 난 내가 바라는 것을 그저 저절로 가지게 될 겁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강요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투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겐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성공을 향한 투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매트릭스의 세포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면서 당신은 모든 에너지를 매트릭스에게 줘버립니다. 당신이 세상과 투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투쟁 속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얻었나요? 당신은 유배지로 가는 사람처럼 우울하게 지겨운 일터나 학교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따뜻한 바닷가로 가서 선댄을 즐길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평생 스키 리조트에 갈 돈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트랜서핑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투쟁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념체계에서 빠져나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냥 가지는 것을 허용하는 길, 이 책에서 당신은 그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책들은 효과가 없는 데 반해,

이 책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트랜서핑은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작품들과 자주 비교됩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 용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와 테운 마레즈의 책으로 유명한 “전사의 길”은 전혀 트랜서핑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반대의 위치에 있는 톨텍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두 가르침을 비교하려 한다면,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둘이 하나의 동일한 목표, 즉 자유-당신이 세상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톨텍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게 복종을 강요하려고 애쓰지만, 트랜서퍼들은 세상에게 복종을 허용해줍니다. 아마도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서로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책은 [시크릿]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은 지식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가르침을 다른 것과 계속 비교하다 보면 우파니샤드에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모든 지식은 하나의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똑같은 발견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사조들이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과 공통되는 요소를 전혀 갖지 않는 가르침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일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현실에 관련된 가르침일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이성도 우리 세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판타지 소설조차도 조만간에 현실이 됩니다. 판타지 소설가들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아이디어와 이미지는 꿈과 마찬가지로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정보 장에 객관적이고 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스터”들도, 또 일반인들도 모두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는 아주 간단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아무 서가에서나 보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고르는 것과 같지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식에 접근할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지식을 받으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하기를 감행해보세요. 그것을 감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음악을 작곡하며, 책을 쓰고, 여러 분야에서 걸작을 창조합니다. 지식은 그것을 붙잡으려는 의도를 밝힌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당신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나 자신의 체험에서 트랜서핑을 시험해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테크닉은 나무랄데 없이 효과가 있고, 보통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평범한 경험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꽤나 자주 일어납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완전히 설명될 수 있기는 하지만, 나는 아직도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언제나 놀라곤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누구든지 의도의 힘으로 현실을 조종하기를 시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느낌-경이로움과 희열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현실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경이로운 일이지요. 당신은 자신이 더 이상 환경조건에 매여 있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며, 스스로 자기의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면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 트랜서핑 이론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트랜서핑 이론은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태 공간에 이미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요. 나의 임무는 그 공간에서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이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chapter)들을 동시에 병행해서 썼지요. 서로 분리된 여러 개의 아이디어들이 저절로 내 머릿속에 들어왔고, 나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 단편들이 충분히 축적되자, 그들이 스스로 합쳐져 전체 그림을 만들었어요. 나는 단지 그 단편들을 엮어서 편집하기만 하면 되었죠. 그런 식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분리된 단편들이 모여 책이 된 겁니다. 보통 한 권을 쓰는

데 일 년에서 일 년 반이 걸렸습니다. 어떤 때는 몇 주 동안 한 페이지도 못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 것을 겁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이해해야 할 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어떤 힘이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은 느닷없이 저절로 나옵니다. 영혼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나오는데, 나는 그곳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이론은 따르기가 어려운가요?

트랜서핑은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효율적인 현실 조종 기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독자들의 편지를 많이 받는데, 그들은 한결 같이 트랜서핑이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높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결과들은 다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이 주문한 것을 얻었지요. 직장, 승진, 새 차, 새 아파트, 인생의 짝을 찾기, 문제와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기 등등.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트랜서핑의 정수를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바이다(Your world is what you think about it).” 세상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누군가가 좋은 상품은 모두 다 팔렸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실제로 그에게는 빈 진열대만 남아있게 됩니다.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비관적인 기대와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기대하는 대로 반드시 일어납니

다. 불친절하고 비우호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면, 그 예감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세상이 자기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는 순수한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일 또한 어떤 식으로든 실현됩니다. 모든 것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괴짜는 묘하게도 어쩌다가 판매대 맨 앞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처럼 상품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첫 손님은 모든 상품을 공짜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뒤에는, 삶의 현실은 훨씬 더 우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이 말은 러시아의 사정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과거에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긴 줄을 서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역주).

트랜서핑은 외부 세계의 환상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주된 환상은 현실이 당신과 무관하게 따로 떨어져 존재하며,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몇몇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규칙들의 자세한 내용은 “트랜서핑”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며,
유사한 가능태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행로나
“너무 유사한” 가능태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지요?

내가 유용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지요. 이것은 의도의 정합(coord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삶은 다른 모든 물질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가능태

*인간 사회는 펜듈럼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펜듈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간에서 항상 원인에 가까이 위치해있어요. 가능태 공간의 구역들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연결되는 흐름을 이루면서 인생행로를 만듭니다. 인생행로 위의 모든 사건들은 두 개의 지선(지류)을 가지는데, 하나는 행운 쪽으로 나있고, 다른 하나는 불행 쪽으로 나 있지요. 이런 저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그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행운의 지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되어 있으면, 당신은 불만을 표현하면서 불행의 지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이 뭔가에 화를 내게 되면, 새로운 문젯거리가 뒤따라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행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생긴 거지요. 그러나 문제들이 줄줄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불행 그 자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 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정합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려고 의도하면, 모든 것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지금 아무리 나쁘게 느껴지더라도, 정합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래에는 기쁘고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험을 치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합격해도 좋은 일이고, 떨어져도 역시 좋은 일이다.’ 어떤 일이 잘 안되었다면, 그것은 모르는 어떤 다른 문제를 겪지 않도록 피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좋

은 일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기분으로 당신이 창조한 운명과 데이트를 즐기세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연히 필요에 맞춰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책은 그냥 긍정적 사고에 관한 책인가요?

이 책은 통상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의도적으로 조종하는 테크닉입니다. 당신이 대단한 낙관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마음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기가 어려울 겁니다. 낙관주의자는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희망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내가 비관주의자라면 어떨까요? 내가 과연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라는 진부한 표현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꼭 잘 돼야만 하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비관주의자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현실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비관주의가 나의 삶을 망쳐놓았었죠. 이제는 불쾌한 일이 생기면, 나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놓고 “유쾌함”으로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100 퍼센트 효과를 발휘하지요. 그 결과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태도 아래에서는 사건들의 흐름이 행운의 지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이 나를 조종하지 않고, 내가 현실을 조종하지요.

당신은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 두 마디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명확히 이해시키기에 충분하지 않

겠네요. 사실 이것은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상당히 방대해질 겁니다.

첫째로, 이 책은 독자들을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서게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진짜 현실보다는 편안한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언제나 더 쉽지요. 사람의 동기와 행동이 이성의 통제 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심리를 독립적인 객체로 여기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쓸모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인간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성은 자유의지가 없으며, 외부로부터 조종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종을 하는 것은 교육자나 행정관리, 조직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미묘한 물질세계의 본질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알려진 대로, 상념에너지는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집단이 동일한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사념파”들이 중첩되어서, 에너지의 바다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재하는 에너지-정보체인 펜듈럼이 창조됩니다.

펜듈럼들은 일단 태어나면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의 의지에 종속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펜듈럼들이 사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구조 안에 심어져있으면서 그 구조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생식물이나 모조생체 프로그램(pseudo-living program)처럼 보입니다. 펜듈럼은 가족, 학교, 회사, 국가 등의 각 인간사회 위에 군림하는 상부구조로서 정묘세계 안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펜듈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모든 구조는 구성요소인 사람들의 의도된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메커니즘이 알고리즘(연산논리)에 의해 지배되듯이, 구조들은 펜듈럼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구조의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못하며, 무의식적으로 구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펜듈럼들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어떤 것에 화가 나서 분노를 표현하면, 당신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은 펜듈럼에 의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펜듈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예를 들어 축구경기가 시작될 때, 그 경기장 위에는 작은 공 모양의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있습니다. 이 구체는 정묘한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 축수-광선이 거기서부터 열광하는 관중에게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게임에 열광하는 감정이 뜨거워짐에 따라, 그 펜듈럼은 에너지로 가득 차서 부풀어 올라 커지게 되지요. 곧 그것은 커다란 크기의 구체가 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그것은 다시 쭈그러들고 작은 공 모양이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끔찍한 문제는 펜듈럼이 그냥 에너지만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사람들을 부채질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바로 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도 당신이 편안히 좀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지요.

아이들이 조용히 있다카도 갑자기 정신없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길을 가로막고, 문젯거리를 가지고 와 당신을 괴롭힙니다. 여기저기

서 장애물들이 마구 튀어나오지요.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아주 늦게 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당신의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웬지 악의를 품은 것처럼 그 일이 꼭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급하게 서두르며 늦을 것을 걱정한다고 상상해봅시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당신에게 맞서서 작용하기 시작하지요.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막으며 우아하고 품위 있게 걸어가면서 당신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최대한 신속하게 문을 지나가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문 앞에 줄을 서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동차도 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치 모든 일이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쾌함이 축적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이 스트레스는 점점 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무의식적인 행동 동기를 만드는 그 힘이 사람의 이성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펜듈럼의 영향력에 저항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자극이 올 때마다 매번 반응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의식적으로 깨어있음으로써 초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자극들에 반응하기를 멈추면, 그들도 당신을 괴롭히는 일을 멈출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펜듈럼들 때문에 더 큰 규모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 혁명, 자원전쟁, 시장쟁탈전, 판매경쟁, 테러리즘 등 이 모두는 눈에 보이는 빙산의 수면 위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묘물질세계에 있는 이 사건들의 근저에는 펜듈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습니다. 펜듈럼들은 갈등의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거의 모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중거울의 다른 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일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겠지요. 사람들이 자원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펜듈럼들이죠. 예를 들어, 개미언덕과 같은 비교적 원시적인 구조를 생각해봅시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군집(colony)이 유지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개미언덕이 분명히 할당된 임무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종속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 모든 개미들이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조직에서처럼 쉬지 않고 자기 일을 할까요?

개미들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방향물질로 서로 의사소통 합니다. 방향물질을 따라서 그들은 먹이와 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군집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시에 정보가 전달될까요? 개미들 간의 더 높은 형태의 정보교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형태의 정보교환방식이 있다면 그들이 왜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리된 구성원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펜듈럼입니다. 어떤 구조가 설립되고 발전함과 동시에, 그 구조의 운영과 유지를 담당하는 에너지정보적인 본질이 창조됩니다. 펜듈럼과 그 구조의 구성원들 사이에 순행과 역행 양 방향의 피드백 관

계가 존재합니다. 펜듈럼은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소유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조종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조직된 사회를 만듭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과정을 이 미묘한 물질 차원의 실체(substance)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매트릭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소설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배양실 속에서 길러지고 그들의 삶은 모두 가상현실인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와는 다르지만, 현실 상황은 그것과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매트릭스에 몰아넣으려면, 중독으로 만든 그물에 사람들을 얽어매야 하지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중독들이 나타났습니다. 음식은 비만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료가 되었고, 컴퓨터 세계는 게임중독과 인터넷 중독을 탄생시켰죠. 사람들은 이제 휴대전화 없으면 외로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일은, 사람들이 시스템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이익이 되는 일을 열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어느 날 매트릭스의 세포 속에서 깨어나 탈출할 수 있도록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펜듈럼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 배양하는 문화식품인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는 펜듈럼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펜듈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펜듈럼을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I'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바딤 젤란드(Vadim Zeland)** | 舊 소련의 양자물리학자였고, 이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다.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변환 기법을 설명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로 단숨에 러시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본 시리즈의 번역 출간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명세를 원하지 않는 탓에 저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책에 소개된 개념들이 신비주의 교의들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현대의 신비'로 여겨지기도 한다.

역자 | **박인수** | 서울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한 후 러시아로 건너가 국제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대학 년 시절 입사체험을 하면서 의식의 빛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마음공부에 입문했다. 마인드컨트롤을 시작으로 20년간 TM-싯디코스, 은비학, 기공, 참선, 아보타코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거치면서 명상학습법 개발과 영적 치유에 열정을 쏟아왔으며, 앞으로 트랜서핑 실천기법을 연구하고 전하려는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잉글리시 마인드 트레이닝》, 《한국어 꺼라 영어가 커진다》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치유 - 아름다운 모험》, 《오라소마 프랙티스북》 등이 있다. 또한 미내사클럽 '지금여기' 번역위원이기도 하다.

추천도서 |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리얼리티 트랜서핑(1) -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

저자 바딤 젤란드 저 | 박인수 역 | 정신세계사 판 | 11,000원



인생의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전3권). 『리얼리티 트랜서핑』시리즈는 더 많은 행복과 풍요로 넘실대는 파도를 골라 그 위로 옮겨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각 개인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인생의 시나리오를 실현시켜줄 파도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트랜서핑은 특별한 자기개발 기법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방법이라고 서문에서 강조한다. 특히 책 전체에 걸쳐 억지로 애쓰지 말고 그저 선택하라고, 그 기쁨을 마음껏 즐기라고 조언한다.

제1편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에서는 부와 성공의 수수께끼를 분석하였다. 왜 원하는 미래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 트랜서핑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 다음, 삶의 문제를 제거하고 인생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 실패를 줄이는 방법, 발명과 창조적 길 등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